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코윈테크(282880)

자본재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이예한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1.03.11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원테크(282880)

2차전지 생산 공정에 특화된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전문 제조기업

기업정보(2021/11/22 기준)

대표자	이재환
설립일자	1998년 10월 14일
상장일자	2019년 08월 05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요제품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시세정보(2021/11/29 기준)

현재가	28,05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2,658억원
발행주식수	9,475,048주
52주 최고가	41,850원
52주 최저가	19,291원
외국인지분율	2.38%
주요주주	
이재환 외 10인	24.17%
정갑용 외 7인	12.03%
정준호	6.15%
자사주	3.14%

■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턴키(Turn-key) 방식 원스탑 솔루션 제공

코원테크(이하 동사)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의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 전문 제조기업이다. 동사는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의 개발에서 설계, 제조 및 설치, 제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턴키 방식의 원스탑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의 삼성SDI, LG화학을 비롯하여 중국, 폴란드, 싱가포르 등 해외 제조사에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전방시장 수요 증가로 인한 장비시장 투자 활성화로 실적 반등

2차전지 시장은 현재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중대형 2차전지의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2차전지 제조사가 중대형 전지의 생산을 위한 신규 장비투자를 지속함에 따라,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동사는 2차전지 전(全)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턴키 방식의 납품이 가능하여,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형 자동화 시스템 납품계약 수주를 통해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총매출 대비 151.6% 증가한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 지분투자와 설비투자를 통한 사업영역 및 생산력 확대 전략 추진

동사는 2021년 3월 전방산업 통합을 통한 사업영역 확대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2차전지 소재 및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인 탐머티리얼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다. 탐머티리얼은 기존 삼원계 배터리 대비 안정성 및 원재료 가격 면에서 우위에 있는 리튬인산철 배터리(Li·FePO₄ Battery, 이하 LFP 배터리)의 설계 및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동사의 사업 확장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사는 2021년 10월 기준 대비 200% 증가한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82.9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및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등 매출 규모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 2018년 결산 당시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768.3	91.5	105.1	13.7	103.4	13.5	-	-	91.2	-	-	-	-
2019	911.0	18.6	208.5	22.9	171.3	18.8	-	-	11.4	2,089	11,142	11.8	2.2
2020	453.5	-50.2	6.3	1.4	25.5	5.6	2.5	2.1	28.0	269	10,846	87.7	2.2

기업경쟁력

공정 자동화 원스탑 솔루션 제공

- 공정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개발 기술 확보
 - 시스템 및 장비 설계, 제어 설계, 소프트웨어 등
-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한 시스템 제어
- 전 공정에 대한 턴키 방식 원스탑 솔루션 제공 가능
 - 시스템 설계, 제작, 시공, 제어, 유지보수 등

고객 맞춤형 유지보수 대응

- 대구, 서산 등 지역별 전담 A/S 조직 체계 구축
- 폴란드, 중국 등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고객사 유지보수 수요에 즉각적인 대응 가능
- CE, CCC, Osha(UL) 규정 등 해외 안전사양에 따라 지속적인 자동화 시스템 유지보수 지원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공정 자동화 시스템 관련 기술력 확보

- 자체 개발한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기반의 제어 프로그램 사용
- 자동화 전산 운용 시스템 개발기술 보유
- 공정 자동화를 위한 무인 운반차 관련 기술력 확보

주요 사업영역 및 제품

2차전지 전/후공정 자동화 설비

극판 자동화 설비 조립 자동화 설비 무인 반송 설비



Aging 및 검사 설비 물류 자동화 설비 출하 및 포장 설비



시장경쟁력

세계 2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시장규모 및 전망

연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18년	3,842억 달러	12.1% ▲
2024년(E)	7,619억 달러	

국내 2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시장규모 및 전망

연도	시장규모	연평균 성장률
2018년	5,494억 원	31.3% ▲
2024년(E)	2조 8,150억 원	

전기차용 중대형 2차전지 수요 증대로 시장 성장

- 2차전지는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전체 시장의 95%를 점유
-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용 중대형 전지의 수요 증가로 2차전지 시장 성장
- 전방시장의 성장에 따라 2차전지 제조사의 중대형 전지에 대한 설비투자 증가로 장비시장 또한 동반 성장 전망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환경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으나, 제품의 생산 전 과정에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
- 동사는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 2차 전지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으며, 품질안전팀을 통해 품질문제를 감독하고 있음.
- 동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가고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지역사회에 기부품 전달 등의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함.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윤리강령을 공개하고 있으며, 동사의 임직원은 이를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동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감사지원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적절한 감사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I. 기업현황

2차전지 전/후공정 전체 대응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원스탑 솔루션 제공업체

동사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부터 시스템 제어, 구축, 유지보수까지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제조산업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생산 및 납품하고 있다.

■ 기업개요 및 주요주주

동사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식품, 자동차, 제약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1998년 10월 설립되었으며, 201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2012년 2차전지 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삼성SDI에 납품하였고, 2017년 LG화학에 2차전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현재 2차전지 전(全)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주력 납품하고 있다.

2021년 분기보고서(2021.09)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이재환으로 동사의 지분 19.13%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2018년 6월부터 대표이사 직속 연구개발조직인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연구개발인력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기존 양산제품 개발 및 기술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자동화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2020년 코원솔루션(前 코원서비스)을 설립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전방산업으로의 사업 확장 및 시너지 효과를 위해 2차전지 소재 및 엔지니어링 업체인 탐머티리얼의 지분을 50% 취득하였다. 그 외에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해외 판매 및 A/S 대응을 위한 현지 법인인 폴란드 법인, 중국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 주 사업영역 관련 핵심기술 및 주요 제품

동사는 주요제품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로 공정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어 기술, 자동화 전산 운용 시스템 개발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전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사, 석유화학 플랜트 등 다양한 고객사에 각 제조공정 및 장비사양에 커스터마이징된 시스템 설계, 제작, 시공, 제어, 유지보수를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외에도 폴란드, 중국, 헝가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각 국가별 안전사양을 준수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 신흥국에 진출할 예정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동사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 내 개별 장비 제품은 고객사의 공정에 따라 다양하나, 주로 입·출고 자동창고, 제품 보관 구조물, 컨베이어, 무인 자동 반송대차, 적재 및 분류장치, 로봇설비, 공정 전산운용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 1] 동사의 주요 제품군



*출처: 동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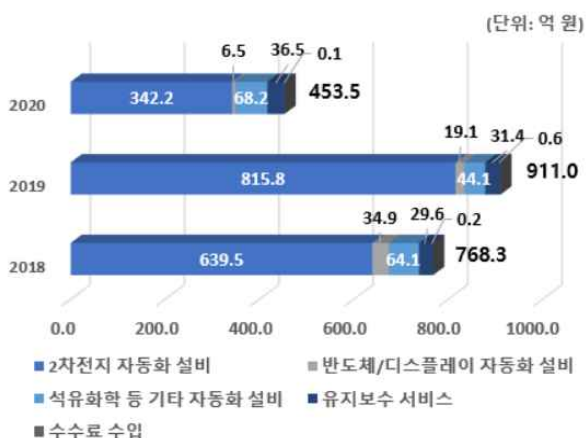
■ 매출 실적 현황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동사는 최근 3년간 2018년 768.3억 원, 2019년 911.0억 원, 2020년 453.5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한 장비투자 지연, 해외영업 난항 및 수주 불안정 등으로 매출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2021년 상반기부터 2차전지 등 전방산업의 투자 재개로 인해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 실적은 687.5억 원으로 2020년 전체 매출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매출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동사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주요 품목은 2차전지 자동화 설비이다. 2차전지 자동화 설비의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63.91%로, 기존 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탑머티리얼의 지분 취득으로 인해 매출 실적이 신규 연결되었음을 감안하면 여전히 동사 품목별 매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687.5억 원) 기준 동사의 수출 비중은 61.1%(420.1억 원)로,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화 설비의 경우 내수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나, 주력 품목인 2차전지 자동화 설비와 탑머티리얼의 2차전지 엔지니어링 사업 수출 실적이 높은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 2018년-2020년 품목별 매출액 추이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표 1] 2021년 3분기 품목별 누적 매출 현황

구분	품목	매출액(억 원)	비중(%)
제품	2차전지 자동화 설비	439.4	63.91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화 설비	11.0	1.60
	석유화학 등 기타 자동화 설비	45.5	6.62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27.1	3.94
기타	수수료 수입	0.2	0.03
탑머티리얼	2차전지 소재	12.9	1.88
	2차전지 엔지니어링	151.4	22.02
합계		68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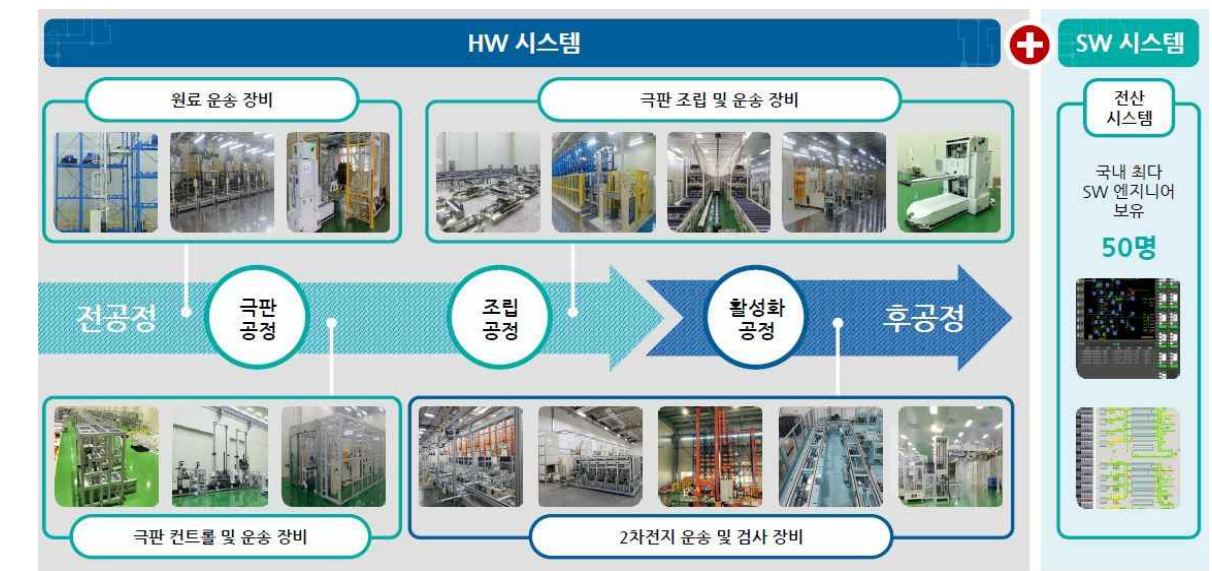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분 및 특징

2차전지의 생산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분류되며, 전공정은 전극/극판 공정, 조립공정이 있으며, 후공정은 충/방전 및 검사공정으로 이루어진다. 2차전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Roll, Reel, Skid 형태의 전지를 믹싱(Mixing), 코팅(Coating), 프레스(Press), 슬리팅(Slitting) 공정 간 이송하고, Buffer에 자동 적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후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생산된 2차전지를 트레이 형태로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하며, 제품의 안정성을 점검 및 출하하고 제품을 보관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전용 자동 입·출고 로봇 시스템, 전지 원료 및 제품을 보관하는 RACK & Booth, 무인 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AGV) 및 레이저 유도 무인 운반차(Laser Guided Vehicle, LGV)와 같은 무인 운반 시스템, 전용 레일 이송 운반(Rail Guided Vehicle, RGV) 시스템, 공정간 이송 운반용 컨베이어, 공정용 로봇 이체 설비 등의 설비와 공정 자동화 전산 운용 시스템을 포함한다. 전산 운용 시스템은 각 클라이언트 PC와 통신하여 창고 내의 제품의 정보 및 설비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3] 동사의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출처: 동사 IR자료(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2차전지 전(全) 공정 원스탑 솔루션을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동사는 자동화 시스템의 생산능력 강화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전체 공정에 원스탑 솔루션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사는 초기 시스템 라인의 설계부터 수주 후 상세 설계, 기계 제어, 설비 제작 및 라인 설치, 정보 및 시스템 제어, 유지보수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턴키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 라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호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설계, 제작,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오류를 자체 개발한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저감함으로써 재작업 및 재구매되는 물량을 최소화하고 있어 전 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원스탑 솔루션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원스탑 솔루션



*출처: 동사 IR자료(2020), NICE디앤비 재구성

■ 자체 개발 PLC 기반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제어 기술력 보유

동사는 자체 개발한 PLC 기반의 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 시스템 제어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PLC란 복잡한 시퀀스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장비에 대응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체 설비의 생산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동사는 고객사의 기존 공정 및 제품 분석을 통해 각 공정별 부하 및 생산 조건을 검토하여 시스템 설계 및 제안, 투자비 산정, 3D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 지원, 기계설비 설계 및 제어 프로그래밍 설계 작업 등 전문화된 자동화 시스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설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오류 검출 및 수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별 시스템에 대응 가능한 약 50명의 제어 기술인력을 보유하여 최적화된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 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속

동사는 2018년 6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AGV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9월 자체 연구개발 과제인 자동화 공정의 연속적 동장을 통해 수급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권취롤 이송용 자동가이드 운송체 개발’, 고중량 Roll의 물류를 자동화하여 제조라인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2차전지 제조라인 Direct Docking AGV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모듈러 설계를 통해 주행경로를 단시간에 자유롭게 변경하여 다양한 규격의 화물에 대응 가능하도록 하는 ‘Flexible Modular AGV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또한, 현재 개발된 AGV의 교통제어를 위해 ‘AGV Control System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정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과제는 AGV 교통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물류설비의 시뮬레이션 및 통합제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술개발을 통해 시뮬레이션부터 교통제어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존 AGV 관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젝트의 단독수행과 현장 단기 셋업(Set-up)이 가능해진다.

동사는 향후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자율주행 무인 운반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며, 강화된 AGV 관련 라인업을 바탕으로 2차전지 전 공정 자동화 시스템에 클린 AGV 시스템을 포함하여 납품함으로써 종합 공정 자동화 시스템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전기차용 2차전지가 글로벌 시장을 견인, 소재 및 부품 경쟁력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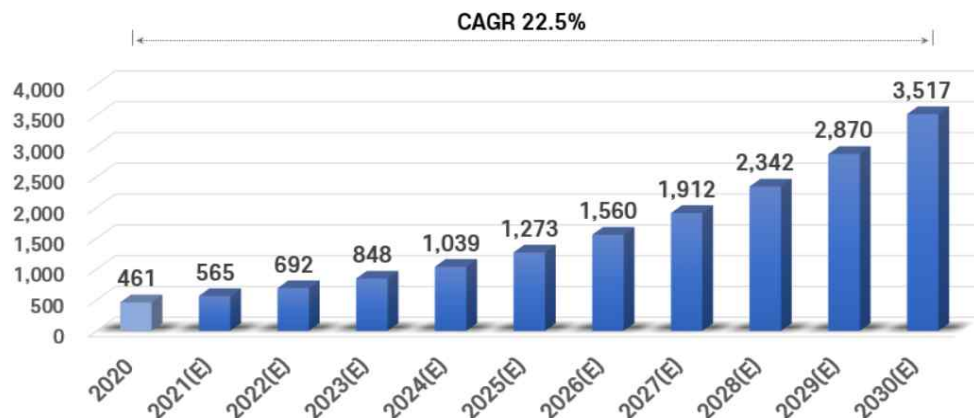
동사는 국내외 업체에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을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다.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동사의 수출과 내수 비중은 각각 61.1%, 38.9%로, 동사는 주로 해외 2차전지 제조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동사가 참여하고 있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이송 시스템 등을 포함한 2차전지 장비시장은 2차전지의 최종 수요 및 2차전지 제조사의 장비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장비시장에서는 최종 제품의 개발 및 생산 주기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선행해 신규 장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장비 제조사의 매출 추이가 등락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2차전지 산업 발전전략 보고서(2021.07)에 따르면, 현재 2차전지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0년 461억 달러 규모로,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연평균 22.5% 성장해 2030년 3,517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형 IT 기기용, 전기차용, ESS용 등을 포함한 전체 2차전지 시장 중 전기차용 2차전지의 비중은 2020년 기준 약 65.9%로, 10년 후에는 전기차용 2차전지의 비중이 86.6%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이 2차전지 시장 전체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글로벌 2차전지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출처: 2030 이차전지 산업(K-Battery) 발전 전략, KDI 경제정보센터(2021.07), NICE디앤비 재구성

세계 2차전지 시장은 한국, 중국, 일본의 3개국이 전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전지 제조기술은 3국이 유사하나, 품질관리 및 생산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생산단가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2차전지 업체는 소형 IT 기기용 2차전지 제조기술에 강점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및 ESS용 중대형 2차전지에 강점을 보이지만 내수에 다소 집중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장비 부문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소재 및 부품의 경우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고(2차전지의 4대 소재의 해외 의존도: 양극 47.2%, 음극 80.8%, 분리막 69.5%, 전해액 66.2%) 시장점유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2차전지의 국내 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장비 부문의 기술력 및 자본을 바탕으로 소재 및 부품의 국산화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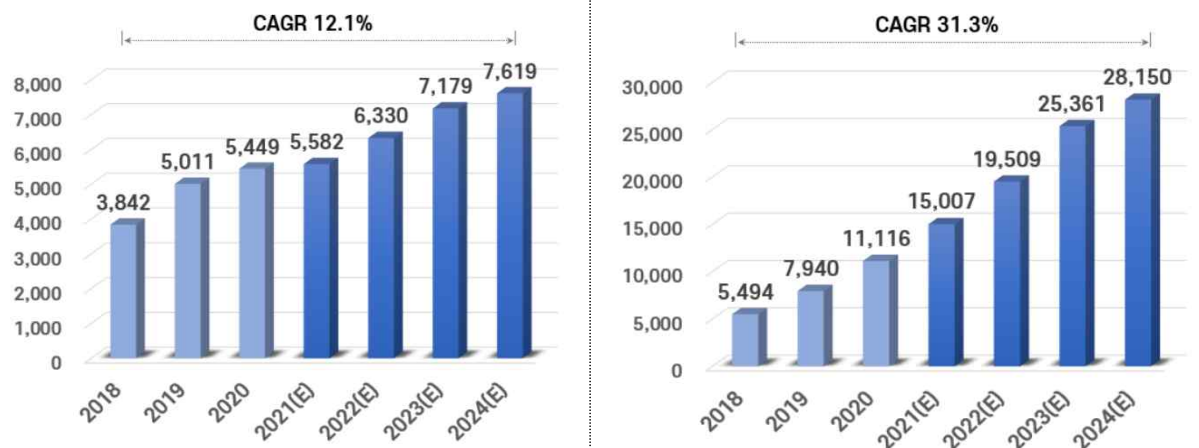
■ 중대형 전지 수요 증가로 인해 2차전지 신규 장비투자 확대 전망

전방산업인 2차전지의 용량 등 성능 향상과 다양한 크기에 대한 수요로 인해 대규모 신규 설비 증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2차전지 장비시장 또한 크게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소형 IT 기기에서 주로 사용되던 2차전지는 현재 전기차 및 ESS에 사용될 중대형 2차전지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어 국내 및 해외 2차전지 제조사 또한 중대형 전지의 제조 및 이송, 검사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대형 전지의 경우 안정성에 대한 이슈로 인해 공정라인 당 검사장비의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소형 전지에 비해 단위 중량이 크므로 정확한 이송 및 적재가 필요하여 생산공정 내 대형 물류/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적극적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보고서(2021~2023)에 따르면, 2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5,449억 달러에서 연평균 12.1%로 성장하여 2024년 7,619억 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규모는 2020년 1조 1,116억 원에서 연평균 31.3%로 성장하여 2024년에는 2조 8,150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해외(左) 및 국내(右) 2차전지 제조장비 및 측정장치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억 원)



*출처: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차전지), 중소벤처기업부(2021~2023), NICE디앤비 재구성

■ 경쟁사 분석

동사의 경쟁업체로는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엔에스, 디에이테크놀로지, 하나기술 등이 있다. 각 기업의 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면, 동사가 453.5억 원, 엔에스가 666.3억 원, 디에이테크놀로지가 568.4억 원, 하나기술이 880.4억 원으로 하나기술의 매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수익성을 비교해 보면, 동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4%, 엔에스 10.2%, 디에이테크놀로지 -25.0%, 하나기술 -5.1%로 COVID-19 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2019년 대비 수익성이 제한된 가운데 엔에스와 동사가 흑자수익성을 시현하여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무난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 국내 주요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업체 현황

기업명	기업개황	주요 연혁 및 생산제품
엔에스  (주)엔에스	대표이사 이세용 1999년 11월 설립 코스닥 중소기업 충청북도 청원군 소재	- 리튬폴리머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설비, 광학필름 레이저 응용 제조 자동화 설비 제조사 2007년 국내최초 하이브리드 차량용 대면적 2차전지 자동화 설비 공급 - 주요 납품처는 LG화학, 남경법인으로, 해외 고객사 발굴 추진 중
디에이테크놀로지  (주)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이종욱 2000년 5월 설립 코스닥 중소기업 경기도 화성시 소재	2차전지 자동화 설비 중 노칭 및 폴딩설비 전문 제조사 2010년 리튬폴리머 2차전지 폴딩설비 국산화 2011년 리튬폴리머 2차전지 레이저 노칭설비 개발 - 고속 노칭설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보유 - 신규사업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및 전고체 배터리 장비 개발사업 추진 중
하나기술 	대표이사 오태봉 2004년 4월 설립 코스닥 중소기업 경기도 용인시 소재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설비 제조사 - 주요제품은 전해액 주액기, 롤프레스, 패키징 장비, 디게싱 및 히팅 장비, 폴딩장비, 노칭장비 등 - 국내 2차전지 제조 3사인 삼성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으로는 일본 무라타, 태국 GPSC를 확보 - 주력 사업 외 유리 열가공 장비, 재생배터리 장비,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 추진 중

*출처: 각 사 홈페이지 및 공시자료(2020),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동사 및 경쟁기업의 수익률 현황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엔에스	매출액	506.5	650.6	666.3	607.8
	영업이익률	5.9	8.5	10.2	8.2
디에이테크놀로지	매출액	921.3	1,088.5	568.4	859.4
	영업이익률	2.3	0.6	-25.0	-7.4
하나기술	매출액	864.3	592.9	880.4	779.2
	영업이익률	5.3	9.7	-5.1	3.3
코원테크(동사)	매출액	768.3	911.0	453.5	710.9
	영업이익률	13.7	22.9	1.4	12.7
동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	6.28	5.83	-	6.06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C29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2020)

*동사 2018년 재무자료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 SWOT 분석

[그림 7]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을 다양한 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탄소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전지인 2차전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환경(E) 부문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으나, 친환경을 경영 요소로 고려하고 제품의 생산 전 과정에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직속으로 품질안전팀을 두어 품질문제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

동사는 사업의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러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동사는 2020년 아산시 의료 취약 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2021년 영덕군에 방충 장비를 기부한 바 있으며,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와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관대리 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예담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6.7%로 동 산업(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평균 여성 근로자 비율인 13.9%를 하회하고 있어, 여성 고용률은 동 산업 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천 원)

성별	직원 수		평균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154	328,595	2.9	6.9	49,515	47,844
여	11	53,265	1.7	6.0	31,878	35,136
합계	165	381,860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지배구조(G) 부문에서 협력사, 이해관계자, 직원 상호 간의 윤리 규범을 포함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이를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의하면 동사의 이사회는 총 4인이며 1인의 사외이사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상근감사를 선임하고 감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였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감사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지배구조

(단위: 명, %)

이사회		감사		주주	
의장, 대표이사의 분리	-	회계 전문성	-	최대주주 지분율	19.13
사내/사외	3/1	특수관계인	-	소액주주 지분율	43.95
사외이사 재직기간	6년 미만	내부통제 제도	○	3년 이내 배당	○
내부위원회	-	감사 지원조직	○	의결권 지원제도	○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II. 재무분석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2020년 영업실적 둔화, 2021년 3분기 실적 반등

2020년 COVID-19로 인해 전방산업 투자가 연기되고 해외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결과 영업실적 둔화를 보였으나, 2021년 투자 재개와 대규모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을 통한 풍부한 수주잔량 확보로 영업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 2020년 해외 2차전지 설비 제품매출이 동사의 매출을 견인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자동화 설비와 전산 시스템의 설계와 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제품의 수요처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식품, 제약, 기계,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국내외 제조사이다. 2020년 기준 매출 유형은 제품매출[자동화 설비 주문제작] 91.9%, 용역수익[유지보수] 8.0%, 기타[수수료 수익] 0.1%로 구성되며, 품목별 비중은 2차전지 82.1%, 반도체/디스플레이 1.6%, 석유화학 외 16.3%로 2차전지 분야 자동화 설비 주문제작에 따른 매출이 동사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연간 수출 비중은 최근 3년간 2019년 59.3%, 2020년 67.4%, 2021년 3분기 누적 61.1%로 60.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수출 중심 사업구조를 나타냈다. 동사는 북미, 유럽, 중동, 중국,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 CE 규정, CCC 규정, Osha(UL) 규정 등에 부합하는 자동화 시스템 납품실적을 보유 중이며 특히 폴란드, 헝가리, 중국, 싱가포르 등 현지에서 즉각적인 A/S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구축하여 고객사를 밀착 관리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해외 수주를 지속하고 있다.

■ 2020년 전방산업 투자지연으로 매출 둔화에도 성장기 도입으로 상승 모멘텀

고객사 공정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공정 레이아웃 및 3D 설계, 투자비 산정, 자동화 시스템 제안, 입찰 경쟁을 통하여 최종 수주 후 납기일까지 약 1~2년이 소요되는 공정 자동화 시스템 설계 산업 특성상, 자체적인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한 거래처 확보와 계약지속여부, 경쟁현황, 전방산업 경기, 수출경기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매출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전방산업의 장비투자가 지연되고, 해외 영업활동이 일시적으로 주춤한 결과 해외 수주량이 둔화되며 전년 대비 50.2% 하락한 453.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다[2018년 768.3억 원→2019년 911.0억 원].

반면, 2021년 전방산업 장비투자 재개와 동시에 대규모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계약 체결에 성공한 동사는 2021년 3분기까지 전년 총매출의 약 151.6%에 해당하고, 전년 동기(262.7억 원) 대비 161.7% 증가한 687.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외형 회복세를 나타냈다. COVID-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양한 산업에서 공장 자동화에 대한 변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 투자, 설비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는 등 동사의 자동화 설비 수주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인 OLED 시장의 성장, 탭머티리얼의 지분투자를 통한 2차전지 소재와 엔지니어링 분야 신사업 진출 등에 힘입어 향후 추가적인 외형성장이 기대된다.

■ 2020년 수익성 악화되었으나 실적반등과 주력사업 집중으로 개선여지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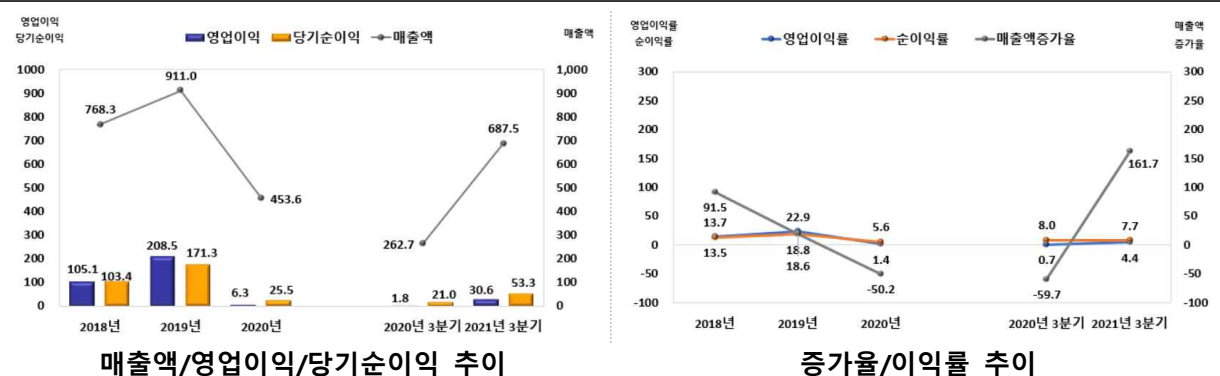
최근 3개년간 매출원가율은 2018년 78.1%, 2019년 70.1%, 2020년 78.3%로 큰 변동을 나타내지 않고 무난한 원가경쟁력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공정 자동화 시스템 산업 특성상 인건비와 임가공 등 외주제작비, 연구개발비(2020년 기준 7.6%)가 판관비 대부분을 구성한 가운데, 2020년에는 큰 폭의 매출 하락에 따라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어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악화된 1.4%를 기록하며 제한적인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매출액순이익율도 매출액영업이익률과 같은 추이를 나타낸 가운데, 외환거래이익, 외환차익, 이자수익 등 금융수익 발생에 따라 매출액순이익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5.6%를 기록하며 흑자기조를 유지하였다[영업이익: 6.3억 원, 당기순이익: 25.5억 원]. 주력제품이 거래처의 설치 현장과 주문에 따라 설계, 제작되는 비규격 주문생산제품으로 사업별 투입비용 변동 관련한 부담은 존재하나, 2차전지 등 특정 분야에 주력하며 채산성이 높은 수주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향후 외형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020년 하반기에 확보된 대형 수주를 포함하여 최근 배터리 시장 확대에 따른 신규 수주 규모를 합산하여 2021년 11월 현재 수주잔고 1,030억 원 이상을 확보한 가운데 이에 따른 매출 호조로 인해 2021년 3분기 기준 매출액영업이익률 4.4%, 매출액순이익률 7.7%를 기록,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 30.6억 원(+1,645.7% YoY), 누적 순이익 53.3억 원(+153.1% YoY)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무난한 수익성을 나타내었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림 8]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 2018년 재무자료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 차입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재무안정성과 유동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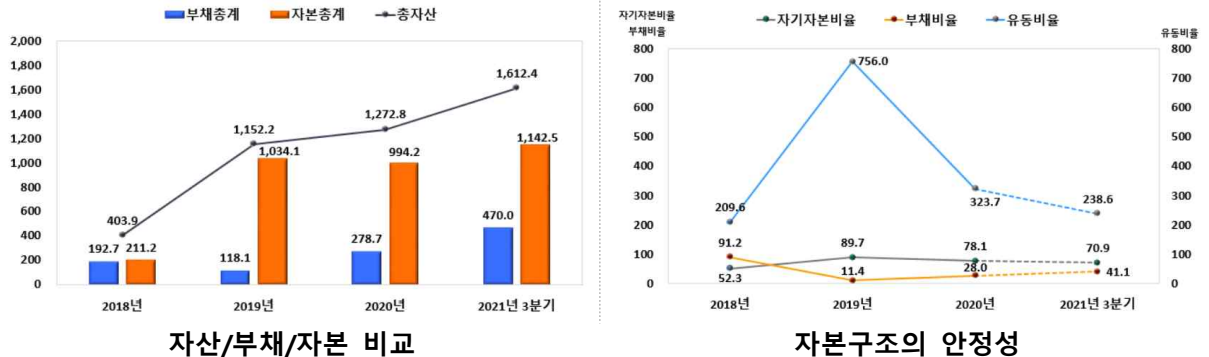
연구개발비, 인건비, 공사비, 일반 관리비 등 고정비 부담이 높은 산업 특성상 시설자금 등 소요에 따라 차입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순이익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입채무와 총차입금 등 전반적인 부채부담 확대로 인해 재무안정성 지표는 전년 대비 악화 되었으나 부채비율 28.0%, 자기자본비율 78.1%, 차입금의존도 13.0%를 각각 기록하며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였다.

최근 3개년 말 기준으로 동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환사채 포함 차입금은 2018년 112.0억 원→2019년 0억 원→2020년 166.0억 원으로 외형 대비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0년말 기준, 현금성자산과 당좌예금, 정기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기관예치금의 보유 규모는 총자산의 약 14.5%인 185.0억 원(전기말 165.2억 원)이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 총액의 111.5%에 해당하는 양호한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후 동사는 공정 자동화 수요 증대에 따라 공장 증설 등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2021년 3분기 말 기준 차입금 사용액은 340.2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104.9% 확대되었고, 부채비율 41.1%, 자기자본비율 70.9%, 차입금의존도 21.1%를 각각 기록하며 전년 말 대비 악화 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 2018년 재무자료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표 6]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768.3	911.0	453.5	262.7	687.5
매출액증가율(%)	91.5	18.6	-50.2	-59.7	161.7
영업이익	105.1	208.5	6.3	1.8	30.6
영업이익률(%)	13.7	22.9	1.4	0.7	4.4
순이익	103.4	171.3	25.5	21.0	53.3
순이익률(%)	13.5	18.8	5.6	8.0	7.7
부채총계	192.7	118.1	278.6	231.4	470.0
자본총계	211.2	1,034.1	994.2	996.6	1,142.4
총자산	403.9	1,152.2	1,272.8	1,228.0	1,612.4
유동비율(%)	209.6	756.0	323.7	379.0	238.6
부채비율(%)	91.2	11.4	28.0	23.2	41.1
자기자본비율(%)	52.3	89.7	78.1	81.2	70.9
영업현금흐름	-29.7	83.9	47.9	52.2	2.6
투자현금흐름	-50.8	-457.1	-122.4	-104.5	18.3
재무현금흐름	32.1	519.6	96.1	79.8	120.0
기말 현금	19.3	165.2	185.0	194.2	353.1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및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 2018년 재무자료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III.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생산역량 강화, 주력제품 출시 본격화와 공급망 글로벌화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

2차전지 공정 내 자동화 시스템의 적용 수요 및 중대형 전지의 수요가 확대되어 주요 고객사의 신규 설비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는 공장 건축 신규 시설투자를 통한 생산역량 강화, 지분인수를 통한 2차전지 소재로의 사업영역 확대, 공급망 글로벌화 등을 추진하며 긍정적 시장 흐름에 가세하고 있어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 자회사 지분투자를 통한 사업영역 확대와 중장기적 성장 기대

당사는 2021년 3월 2차전지 소재로의 사업영역 확대,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2차전지 소재 제조 및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인 탐머티리얼의 지분 50%를 취득하였다. 탐머티리얼은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등에 소재하는 신설 2차전지 제조사의 전 공정 설계, 장비 공급, 생산 안정화 서비스를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해왔으며,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양극재는 전기차의 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차전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산업 통합으로 인해 탐머티리얼의 기술 및 영업 네트워크가 향후 당사의 제조 및 영업 부문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의 전기차 리튬인산철 배터리 탑재로 신규 장비 수요 확대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 일부 전기차 배터리를 기존 삼원계 배터리 대비 발열 위험성이 적고 원재료 가격경쟁력이 높은 LFP 배터리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현대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모델에도 LFP 배터리가 교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FP 배터리의 설계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탐머티리얼의 지분을 취득한 당사의 매출 실적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신규 장비투자에 힘입어 당사의 2차전지 전/후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 기술, 탐머티리얼의 LFP 소재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긍정적 시장 상황의 수혜를 통해 당사 실적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신규 공장 및 시설 투자로 생산역량 확대

2021년 10월 당사는 2차전지 시장 등 주요 산업의 공정 자동화 수요 증대에 따른 생산역량 확대를 목적으로 82.9억 원 규모의 공장 건축 등 신규 시설투자를 결정했다. 투자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8.34%에 해당하며, 2022년 3월 31일 준공예정이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상기 투자 규모는 현재 제1, 2, 3공장의 생산능력 대비 약 200% 증가하는 수준으로, 향후 품질개선,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 증대, 2차전지 소재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매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유진투자증권	BUY	39,000원	2021. 11. 15.
	■ 2021년 3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요소는 2차전지 전방시장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2차전지 자동화설비 매출이 지난해 3분기 대비 183.5% 증가하였으며, 지난 3월에 인수한 탑머티리얼의 시스템엔지니어링 및 2차전지 소재 관련 매출이 반영되면서 자회사를 포함한 기타 매출 기여도가 큼 ■ 2021년 4분기 추정 예상실적(연결기준)은 매출액 347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7%, 845.3% 증가하며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 실적 성장세 예상에 대한 근거는 국내 2차전지 고객사의 공격적인 투자로 미국, 폴란드, 헝가리, 중국 등에서 대규모 수주 확보 예상, 미국, 동남아, 유럽 등의 해외 로컬 배터리, 완성차 업체에 대한 영업활동이 확대, 자회사 관련 매출 실적반영 예상, 2차전지 소재 부문 매출 성장도 기대되는 점임		
대신증권	Not Rated	—	2021. 09. 14.
	■ 글로벌 이차전지 본격적인 증설 Cycle → 수주 확대 기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부문 국내 선두 업체로 파악되며 하반기 국내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의 유럽 증설 계획에 따른 대규모 수주 가능성 높은 상황임. 자회사를 통한 해외 이차전지 고객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미국, 중국, 유럽, 베트남 업체 등에 생산라인 엔지니어링 수주 레퍼런스 보유에 따른 시너지, 양극재, 전극공장 증설로 2022년 상반기 완공 후 매출 발생 가능 전망됨 ■ 2021년 영업이익 130억 원(+1,962% YoY) 전망. 2021년 매출액 1,248억 원(+175.2% YoY), 영업이익 130억 원(+1,961.9% YoY) 예상되며 하반기 이후 수주 확대 및 향후 소재 사업 가능성까지 충분한 주가 상승 모멘텀 보유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0]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1년 11월 22일)